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너희도 서로
남의 방을
씻기 위하여 한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창조절 제4주 】

(2부 찬양: 312.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인도 : 이범석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626.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x3)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김기석 목사
- ▲ 경배의 찬송 43. 즐겁게 안식할 날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희망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푸른 가을 하늘 아래 쾌청한 바람을 쐬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비교하며 시기했던 뻔족한 마음을 내려놓고, 웅졸했던 일상의 틀을 뒤집겠습니다. 하늘 바람으로 이웃들을 상쾌하게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욕심 사나운 이들이 전쟁을 확대하고,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외경심조차 없는 이들을 깨우쳐 주십시오. 전쟁으로 끔찍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더 이상의 참담한 고통은 멈추게 해 주십시오.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사65:17~18 인도자
- ▲ 교 독 문 83. 빌립보서 4장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2부 대표기도 장원호 장로
- 2부 응 답 송 반주자
- 2부 찬 양 37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함께
- ▲ 성경봉독 빌 1:12~18 1부:인도자/2부:강세기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 독 자
 다 합 께

찬 양	I. 하나님의 부르심	마중물 찬양대
	II.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청과 찬양대
말 씬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김기석 목사
거뭇 기도		다 함께
2부 찬 양	95.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p>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어지러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십시오. 일상의 터전에서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일구십시오.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곳에 기쁜 소식이 되고자 애쓰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명랑하게 감당하십시오.</p> <p>다 함 께 : 아멘. 주님의 충만한 빛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어려움이 겹겹이 쌓였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감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누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p>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다음주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1부	이태후	공동기도	인도자	이재훈
2부	이태후	곽권희	조항미	이범석

-  청과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ungpachurch/>
-  청과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예배실황' 클릭
-  청과교회 카카오톡 채널 : 친구검색창에 '청과교회' 검색 후 채널 추가
- ※ 헌금계좌 : 새마을금고 9002-1751-3375-3 (예금주 : 청과교회)

